

소외이웃 '배고픈 명절' 막기 총력

광주시·전남도 추석 가장 10일 연휴 급식대책 마련 만두·햇반 등 대체식품 지원...이웃주민 연결 방안도

올 추석 명절 연휴가 10일에 달해 결식 아동과 독거노인의 '급식지원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최장 황금 연휴'에 따른 음식점 등의 장기 휴업으로 저소득층은 더욱 배고픈 명절을 보내는 도미노 현상도 예고되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10월 9일(10일간) 동안 이 지역 내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의 급식 지원을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평소 광주시는 아동급식은 대상 아이에게 곁집사(4000원)를 나눠주고 식당이나 분식점, 편의점 등에게 자유롭게 하루 한 끼를 사 먹게 하고, 독거노인은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다.

문제는 이번 연휴 기간에 곁집사카드를 나눠줘도 음식을 구입하기가 힘들어 지고 담당 직원들의 휴무로 도시락 배달도 여의치 않게 됐다는 데 있다. 문을 닫는 음식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지역 무료급식소 32곳도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더욱 배고픈' 연휴를 보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배 넘게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현재 광주시는 올 추석 연휴에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 지원대상을 1만 1068여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10일 동

안 4억4200여만원(지난해 1억1600여만원)을 들여 곁집사카드를 나눠주거나 햇반, 만두, 참치 등 대체식품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남도도 18일까지 지자체별로 저소득 아동 지원대상 수요조사를 한 뒤 이들에게 지원할 급식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설엔 저소득 아동 지원대상 수가 1만1820명이었다. 예산도 지난 설보다 두 배 이상인 4억7300만원 가량 될 것으로는 추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농촌지역의 특성에 따라 음식점 이용보다는 연휴 시작 전에 미리 식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식품권을 제공하는 한편, 해당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웃주민을 사전에 연결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곁집사카드 가맹업소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경우 음식 재료를 사전에 나눠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연휴기간 비상근무 상황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시락을 지원받아 점심을 해결했던 광주지역 독거노인 667명에게도 광주시는 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은 지역 복지관 등이 위탁받아 운영하지만 연휴 기간 관계자들이 쉬는 탓에 사전에 떡이나 간편식 등을 미리 나눠 줄 계획이다.

하지만 연휴 기간 문을 닫는 곁집사카드 가맹업소가 늘어날 경우, 급식 지원 아동들은 연중 무휴 곁집사카드 가맹 편의점을 찾아 밥을 먹고 독거노인들은 가장 10일 동안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

또 평소 무료급식을 했던 광주지역 사회저소득층 4451명도 32곳의 무료급식소가 연휴 기간 문을 닫는 탓에 끼니 해결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대 "융합교육으로 4차산업혁명 주도"



"전남대 화이팅" 전남대학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어젠다 2021' 선포식이 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열렸다. 정병석 총장, 정인재 총장청회장과 교수 등이 대학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미래형 인재 양성 비전선포식

전남대학교가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미래형 인재 양성에 본격 나선다.

전남대학교(총장 정병석)는 4일 학교 민주마루에서 대학 구성원과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어젠다 2021' 선포식을 열었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대학발전 5대 어젠다(Agenda) - 20대 전략과제·100대 핵심사업을 공개했다.

5대 어젠다는 '긴 호흡, 멀리 보는 전남대인(교육)' '연구자들의 빛, 전남대학교' (연구), '지역민의 사랑, 앞서가는 대학'(지역사회), '나의 뒷방, 행복한 동행(복지)', '상식과 순리, 꿈꾸는 미래'(행정) 등이다.

전남대는 이를 실현할 전략과제로 ▲미래 선도형 교육체제 확립 ▲연구자 친화형 캠퍼스 구축 ▲지역 사회 평생교육 ▲전남대학교 복지플랜 2021 ▲행정 민주화 등 20개를 설정했다.

장외인재 양상을 위한 융합대학 설립, 우수연구자 배려, 평생교육원 체제 개선 등 100개의 핵심사업도 제시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매곡동 농장서 개 구조는 했지만...사육공간 없어 '막막'

동물단체, 광주시에 도움 호소

광주 동물복지단체들이 동물 학대 논란이 인 북구 매곡동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 100마리에 대한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4일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등 48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북구 매곡동 개농장과 관련, "구조된 개를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았다고 있다"며 "광주시가 나서 부

지를 마련해 주면 시설공사, 사료비, 관리 인력 등 일체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북구의 신속한 합동조사와 형사고발, 광주시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결과를 얻어냈다"며 "하지만 농장에 있는 개 100여 마리에 대한 구조문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위드' 등은 후원금으로 화순에 990㎡(300평) 규모 축사를 임대해 개 5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나머지 50마리는 수도권 동물단체가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육 부지를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위드' 관계자는 "개 50마리는 한달 관리비만 300만~500만원이 예상된다"며 "식용 개들은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겨 가정 입양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부지 마련 등은 광주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농장 2곳은 지난달 10일 광주 동물복지단체에 의해 학대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달 14일 북구는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매일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고압전기로 10~20마리 개를 도축하는 등 동물보호법(8조2항)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광주시와 북구, 동물단체 등은 농장 운영 중단을 요청했으며 농장주들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농장주들은 운영 중단을 조건으로 광주시에 일괄적으로 개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용희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8 | 해질 18:24
해짐 18:54 | 달짐 04:46

기울비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흐리고 비	20/26	보성	흐리고 비	19/24
목포	흐리고 비	21/27	순천	흐리고 비	21/27
여수	흐리고 비	22/26	영광	흐리고 비	20/25
나주	흐리고 비	20/27	진도	흐리고 비	21/27
완도	가끔흐리고 비	22/27	진주	가끔흐리고 비	19/24
구례	흐리고 비	18/26	산성	흐리고 비	19/24
강진	가끔흐리고 비	21/27	남원	가끔흐리고 비	18/25
해남	가끔흐리고 비	21/27	홍산도	흐리고 비	20/24
장성	흐리고 비	19/25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남동~남	0.5~1.0
	먼바다	동~남동	1.0~2.0	남~남서	1.0~2.0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남~남서	0.5~1.5
	먼바다(동)	동~남동	1.0~2.5	남~남서	1.0~2.5
남부	먼바다(서)	동~남동	1.0~2.5	남~남서	1.0~2.5

◇생활지수

- 식중독: 위험
- 자외선: 보통
- 파부질현: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03	01:38
여수	19:01	13:36
	02:31	08:25
	14:25	20:59

◇주간 날씨

날짜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날씨	☁	☁	☀	☀	☀	☁	☀
기온	23/27	22/28	19/30	18/31	19/31	20/28	21/30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지역별 교원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이 상향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4일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리조트에서 연 총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 억제'를 위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건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초등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을 만점의 3%(올산 1%)에서 6%로 상향 조정하고, 타 시도 졸업자(졸업예정자)에게도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201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소외지역의 현직교원들이 임용시험을 다시 치러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가결된 안이 적용되면 교대생들 간의 지역가산점 차이는 3%로 현재와 같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현직교원 응시자와 비경력자의 가산점 차이는 최대 6%로 벌어진다.

/이종형기자 golee@

영유아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

생후 6~59개월 아동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4일부터 시작했다.

우선 접종 대상은 2012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중 생애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거나 지난 질기에 첫 접종을 시도했으나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아동이다.

이들은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12월 이전 최소한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다. 생애 첫 접종을 완료해 올해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어린이는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cdc.go.kr)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생후 6~12개월 아동에게만 무료접종을 해왔으나, 올해는 대상을 6~59개월 아동으로 확대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감염력이 높지만, 무료접종 대상자가 확대돼 질병 예방 확대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접종은 내년에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박진표기자 lucky@

다비치안경체인 Davich Optical Chain

동신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육부 LINC+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사업 선정

- Orthoptic 안경사(시기능교정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

2018학년도 수시 모집

모집기간 : 2017년 09월 11일 ~ 15일

문의전화 : 061-330-3550

홈페이지 : http://www.dsu.ac.kr/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이란?

- 산업체 맞춤형 (Orthoptic 안경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 시기능훈련 학습을 통한 학과 교육 특성화
- 채용약정을 통한 취업연계 실무 인재양성 교육과정

특전

- 산업체 장학금 지원
- 재학 중 인턴사원 근무
- 우수자 해외연수 및 대학원 학비지원

동신대학교 잘 가르치는 대학

- 교육부 "잘 가르치는 대학" ACE+ 사업
- 교육부 LINC+ 산학협력고도화 사업
- 교육부 PRIME 사업
- 대학특성화(CK-1) 사업
- 고용노동부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재학생

Orthoptic 안경사 교육과정
산업체(다비치안경체인) 사회맞춤형 교육
산업체 장학금 지급

졸업

졸업 즉시
정규직 100% 취업
연봉 3,000만원(산업체 실무인증 시)

안경광학과

창간 이래로 세상을 바꾼다!
국내 유일 시기능훈련 임상 센터
호남 유일 4년제 안경광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 운영

전국 230여개 가맹사업 전개
창업경연선선 선정 2017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선정
다비치 고객가치경영연구원 운영




